#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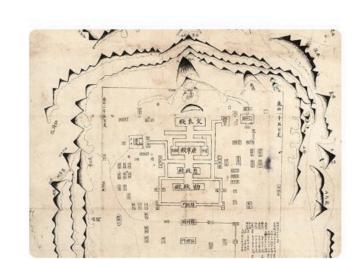
# 프로토타입 ProtoType #Sub1



종목 사적 (구)제 117호 면적 432,703m<sup>2</sup> 시대 조선 태조4년 (1395) 소유 대한민국 정부(국가유산청)

관리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세종로, 경복궁)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ac.go.kr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반영한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도 (서울 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 경복궁

경복궁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1395년(태조 4)에 창건한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경복궁은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넓은 지형에 건물을 배치하였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진 한양의 중심이었다. '경복'의 이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곳에서 세종 대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반포되기도 하였다.

경복궁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는데 그 후 복구되지 못하였다가 270여년이 지난 1867년(고종 4)에 다시 지어졌다. 고종 대에 들어 건청궁과 태원전, 집옥재 등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건청궁 옥호루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1910년 경술국치 후 경복궁은 계획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하여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철거되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경관을 훼손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복궁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였으며 흥례문 일원, 침전 권역, 건청궁과 태원전, 그리고 광화문 등이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관 : 경복궁관리소[03045]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전화번호 : 02-3700-3900

경복궁 소개

경복궁 역사

경복궁 이야기

경복궁 지도

경복궁도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반영한것으로

# 경복궁



종목 - 사적 (구)제 117호

시대 - 조선 태조 4년 (1395)

소유 - 대한민국 정부(국가유산청)

관리 -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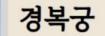
면적 - 432,703m<sup>2</sup>

경복궁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세종로, 경복궁)

추정되는 경복궁도 (서울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ac.go.kr





경복궁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1395년(태조 4)에 창건한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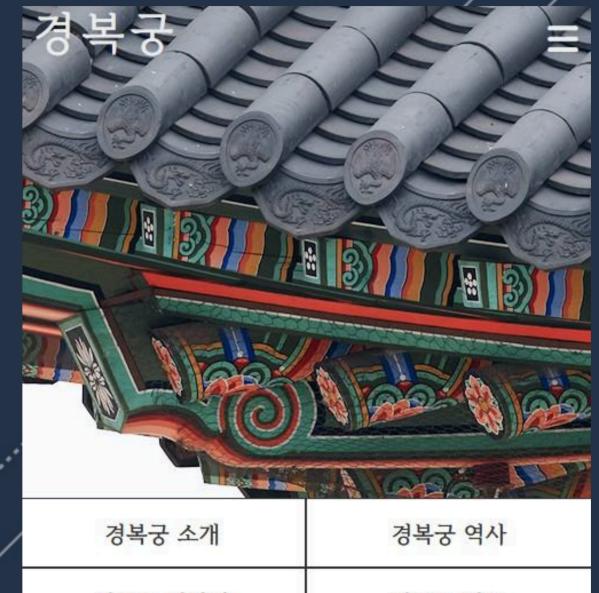
경복궁은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넓은 지형에 건물을 배치하였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진 한양의 중심이었다. '경복'의 이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곳에서 세종 대 성되었으며, 특히 건청궁 옥호루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1910년 경 역, 건청궁과 태원전, 그리고 광화문 등이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관: 경복궁관리소[03045] 주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전화번호: 02-3700-3900 © Korea Heritage Servic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안전신문고 도로명주소안내



## 경복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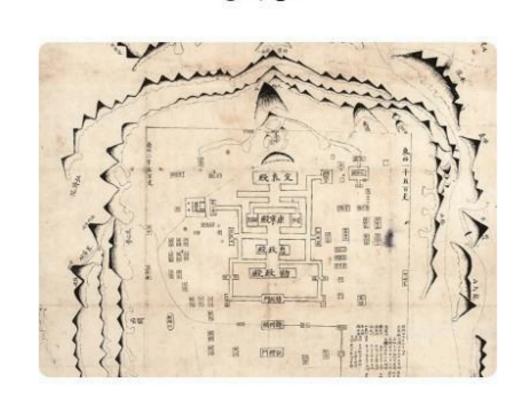
종목 - 사적 (구)제 117호 면적 - 432,703m² 시대 - 조선 태조 4년 (1395) 소유 - 대한민국 정부(국가유산청) 관리 -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 경복궁 위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세종로, 경복궁)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ac.go.kr

### 경복궁도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반영한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도 (서울 역사박물관)



## 경복궁

경복궁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1395년(태 조 4)에 창건한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경복궁은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넓은 지형에 건물을 배치하였고 정문 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진 한양의 중심이었다. '경복'의 이 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곳에 서 세종 대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반포되기도 하였다. 경복궁은 1592년 (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는데 그 후 복구되지 못하였다가 270여 년이 지난 1867년(고종4)에 다시 지어졌다. 고종 대에 들어 건청궁과 태원 전, 집옥재 등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건청궁 옥호루는 1895년 을미사변으 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1910년 경술국치 후 경복 궁은 계획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하여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철거되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경관을 훼손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복궁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 하였으며 흥례문 일원, 침전 권역, 건청궁과 태원전, 그리고 광화문 등이 복 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